보석·구속적부심, 有錢허가 無錢불허?

서남대 설립자 보석 논란속 남용 목소리 높아

순천지원 보석허가율 67.3%… 해남지원의 두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보석 허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석 허가와 구속적부심 석방 등이 남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변호사 선임 여부는 물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들 제도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영향력 유무에 따라 일부 계층에 편향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광주지법에는 304건의 보석이 청구돼 이 가운데 145건(47.7%)이 허가됐다. 같은 기간 목포지원은 56건 중 18건(32.1%), 해남지원은 18건 중 6건(33.3%) 등으로, 30~4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순천지원의 경우 101건 가운데 무려 68건(67.3%)을 허가해 줘 다른 지역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광주지법 및 산하 지원에 모두 171명이 청구, 이 가운데 63명(36.9%)이 석방됐다.

■2008~2012.06 보석허가 현황 (단위:건)

	광주지법				전국			
	청구	허가	허가율	차이	청구	허가	허가율	차이
변호사 선임	2,981	1,419	47.6%	14.4%P	34,592	15,373	44.4%	7.5%P
미선임	205	68	33.2%		4,225	1,557	36.9%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사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보석 허가 비율도 크게 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에 청구된 보석은 모두 3186건으로, 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2981건에 달하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허가율은 47.6%(1419건)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선임하지 못한 205건 중 보석이 허가된 비율은 33.2%(68건)에 그쳤다.

이처럼 보석 허가율이 각 지역 별로,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다. 최근에는 보석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생겨날 만큼 보석 허가를 받아낸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

■지법 및 지원 보석허가 현황

(2011.09월~2012.08월, 장흥지원 제외 〈단위:건〉)

	청구	허가	허가율
광주지법	304	145	47.7%
목포지원	56	18	32.1%
순천지원	101	68	67.3%
해남지원	18	6	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1년 8월 구속기소된 지역 향토기업 모 회장 역시 구속 100여 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았다가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폭력범도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제가 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8일 2명의 성폭력 피의자를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올 들어 구속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 김병술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대표 등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과 보석 모두 사유가 되면 석방이나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부 재판부의 재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듯하다"며 "제도 보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우찬 〈8753〉 김종두

치과의사 만취 운전… 추돌사고 1명 사망

새벽녘 광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치과의사가 몰던 고급 외제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추돌, 사고 여파로 화재가 발생해 마티즈 운전자가 숨졌다.

13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여·55)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한모(47)씨가 운전하던 고급 외제 승용차가 추돌했다. 사고 직후 마티즈와 외제 승용차 범퍼에 불이 붙었고 이 불로 마티즈 운전자인 A씨가 숨졌다.

사고현장서 300m 가량 떨어진 도로 한 지점에 멈춰선 외제차 역시 화재가 발생, 차량 일부가 탔다.

사고를 낸 한씨는 현직 치과의사로 이날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고를 당한 A씨는 광주시 북구 한 업소의 주방에서 일을 했으며 퇴근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귀가 중이었다.

한씨는 '꽝' 하는 소리를 듣고 인근 식당에서 달려나 온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티즈 차량을 조사한 결과 사이드브레이크가 올려져 있었다"며 "A씨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신호 변경을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한씨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한씨의 진술과 주변 건물 CCTV 녹화장면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영유아 영양 검사

13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대상자 모집에 참가한 영유아들이 키, 몸무게, 빈혈 유무 등의 건강 검사를 받고 있다. 이번 행사 참여자 모집은 15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백화점 협박범 검거

전주 롯데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용의자가 범행 일주일째인 13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은 이날 새벽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백모(45)씨의 원룸 앞에서 잠복하던 중 수사망에 쫓겨 도주하려고 짐을 싸 나오던 백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6월 출소한 백씨는 전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는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곤궁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과학교사 남는데… 과학담당 기간제 채용"

전교조 광주지부, 사학 교사 채용비리 조사 촉구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실태를 정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는 전체 학교 대비 사립학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사립학교 운영 실태를 조사해 교사채용·회계 비리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전사학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또 광주시의회에도 '사립학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학비리 척결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중·고교를 운영하는 광주의 사립학교법인 A학원은 고교 기술가정 교사가 남는데도 중학교에 기술가정 교사를 채용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했는데도 A학원은 거짓서류를 꾸며 기술가정 교사 채용을 강행했다.

B학교는 지난해 과학 과목에서 과원이 발생해 해당 교사를 공립학교로 파견했다. 올해 복귀해 과학 교사가 부족하지 않는데, 이 학교는 별도로 과학 담당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억 '명품 짝퉁' 판매

광주세관 50대 女 조사

광주본부세관은 13일 자신의 집에서 수억 원 상당의 해외 유명상표 짝퉁 가방 등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여·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동대문상가 노상에서 중국 등지로부터 밀수입된 가방, 지갑, 선글라스 등 이른바 '명품 짝퉁' 상품 394점(진품 시가 4억원 상당)을 사들여 자신의 집 안방에 진열해 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만을 상대로 짝퉁 상품을 판매해 오다가 최근 한 시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납치·폭행당한 범서방파 새 두목

지난달 숨진 김태촌씨가 이끈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새 두목이 서울 강남에서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납치돼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범서방파 조직원 A씨에 따르면 최근 두목으로 추대된 나모(48)씨는 지난 3일 오후 강남구 청담사거리 앞에서 호남 최대 조폭인 K파 조직에 납치됐다.

나씨는 경기도 기흥휴게소까지 끌려가 폭행당하다가 밤 9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에서 탈출, 인근 식당에 숨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경찰은 나씨를 바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 나씨를 납치한 일당은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K파 두목은 '큰 도박판이 열리니 2억원을 가져오라'며 그날 오후 청담사거리 인근 식당으로 나씨를 유인했다. A씨는 "그 조직은 예전부터 우리와 경쟁관계여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기회를 엿보다 이번에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강남경찰 관계자는 "조직원 간의 세력 다툼인지 개인 간 원한관계인지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씨는 김태촌의 직계 부하로 범서방파에서 1980년대 행동대장급 간부로 활동했으며 1986년 일어난 '뉴송도호텔 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온라인서 만난 남자 집 턴 10대 女

쌍나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남성의 집에 들어가 새벽에 돈과 스마트폰을 훔친 간큰 10대 여성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김모(26)씨의 원룸에서 스마트폰과 현금 4만원을 훔친 김모(16)양을 절도혐의로 입건.

○…경찰조사 결과 김양은 가출한 상태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남성이 숙식을 해결해준다는 말에 그의 집에 갔다가 금품을 훔쳐 도망친 혐의.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1204-중-4738호